

존엄적 안락사 논쟁의 사회윤리학적 성찰*

문시영 (남서울대학교 교수 / 윤리학)

I. 들어가는 말

II. 존엄적 안락사 논쟁의 본질과 과제

1. 존엄적 안락사 개념의 윤리적 성찰
2. 개념의 구분인가? 변화의 요구인가?
3. 생명문화의 변혁을 위한 사회윤리

III. 나오는 말

* 이 글은 우원사상연구소(강남대)가 주최한 2006 춘계 학술심포지엄(2006.5.8)에서 '존엄적 안락사 개념의 기독교윤리학적 평가'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것으로서, 논평과 토론에서 제안된 여러 의견들을 고려하여 수정·보완하였음을 밝혀 둔다.

• **ABSTRACT** •

This paper has a suggestive perspective to the ethical debate about euthanasia. Generally speaking, the concept analysis or subdivision is the main stream of approaches to the problem of euthanasia. Of course, the concept of euthanasia has diverse meaning according to patient's will and medical methods. But the crucial concern on euthanasia seems to be the con or pro decision-making. It includes so many factors, for example, the living will, the ethical and religious dispositions of the family, and economic conditions, etc.

This paper argues that the social and cultural factors are very important aspects in the ethical reflections on euthanasia. Especially, the changes of culture and social conditions are the most meaningful factors, for example, medical and bio-technological developments and the changes of the consciousness on ending life. In short, cultural changes invites us to new view of death; dying is no longer something that happens to us but something to we do.

Now, the proposal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1)we must have deep concern on social and cultural factors in dealing with the ethical problems of euthanasia. (2)Christian ethics have to study the theological correspondent strategy to cultural changes in the sphere of bio-medical ethics also. And (3)Christians must to give the practical alternatives for the social and cultural changes in bio-medical problems. For example, hospice movement, welfare for the aged etc. must be study and practice by church communities.

Keywords: Euthanasia with Dignity, Cultural Transformation, Ethical Alternatives.

I. 들어가는 말

안락사를 허용하지는 요구가 법제화 시도로 이어지고 있다. 안락사 개념의 세분화는 그 전략의 하나이다. 안락사 전체를 허용하지는 것이 아니라 조건부 허용이라는 인상을 심어줌으로써 안락사에 대한 인식을 바꾸려는 시도이다. 그리고 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해소하지는 요구가 추진력이 되고 있다. 보라매 병원 사건이 언론의 주목을 받았을 때, 그리고 식물인간 '시아보'의 영양공급 튜브를 제거했을 때, 안락사에 대한 관심은 고조되었다. 정치권 에서도 안락사 법제화를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의 학술모임들에서 경쟁적으로 안락사 문제를 다루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우리사회에서 안락사 문제에 관한 논의가 처음 있는 일이 아니건만, 그동안 왜 본격적인 공론화가 이루어지지 못했는지 궁금할 정도이다. 혹자의 의견처럼, 우리사회의 성숙도를 비추어 볼 때, 오남용의 가능성이 대두된다는 점에서 시기상조라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환자와 가족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과연 이 순간, 중환자실에 사랑하는 가족을 둔 사람들에게, 그리고 고통받는 말기환자 당사자에게 삶이란 무엇이며, 죽음이란 또한 무엇인가? 기독교는 과연 어떤 답을 주어야 하는가?

이 글은 우리사회에서 안락사 허용여부를 놓고 다시 점화된 생명윤리적 담론에서 기독교적 생명윤리를 성찰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안락사에 관한 정보를 추가해 줄 개념의 분석이나 반대론의 근거들을 나열하거나 그 설명을 반복하고 싶지는 않다. 인터넷은 우리에게 너무 많은 자료들을 친절하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최근의 안락사 법제화 시도를 둘러싼 논쟁과 관련하여 사회윤리학적 관

점에서 기독교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을 짚어 보고자 한다.

II. 존엄적 안락사 논쟁의 본질과 과제

1. 존엄적 안락사 개념의 윤리적 성찰

존엄적 안락사란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의 존엄을 위한 최선의 길인가? 혹시 '존엄적'이라고 이름 붙여진 '안락사'는 그것이 존엄성을 위한 수단이라는 착각과 이미지를 심어 주는 것은 혹시 아닐까? 본래, 안락사(euthanasia)라는 말은 현대적 구분처럼 여럿이 아니었다. 인터넷과 서적을 통해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은 '편안한 죽음'이라는 그리스 어원과 사뭇 다른 방식으로 안락사를 설명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안락사 개념은 죽음에 이르는 방식(how the death is brought about)에 관한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¹⁾ 현대의료기술의 발전 및 생명문화의 변화를 배경으로, 안락사 개념은 죽음의 방식과 권리, 그리고 인간존엄의 의미와 관련된 다양한 논의를 양산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사회적 비용에 대한 고려와 환자가족에 대한 배려를 명분으로 하는 법제화의 시도는 현대인의 생명문화 또는 가치관을 반영하는 복합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현대적 의료기술의 발전은 안락사 개념의 세분화 또는 개념상 외연의 확장을 유도하고 있다. 안락사 개념의 한쪽 끝에는 그것이 '안락살해'로 이해되고 있다는 강력한 반론이 있고, 반대편 극단에 의사조력자살(Physician Assisted Suicide)의 권리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이르기까

1) Childress, J., "Christian ethics, medicine and genetics" in Gill, R., ed., *The Cambridge Companion to Christian Ethics* (Cambridge Univ. Press, 2005. 5th ed.) p.270

지 광범위한 스펙트럼을 형성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안락사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안락사 개념이 질병의 고통을 없애려는 의료적 개입에 편승하여 환자의 고통을 종식시킨다는 명분으로 자행하는 ‘안락살해’로 변질되었다고 지적한다.²⁾ 다른 한 편에서는 '자비로운 행위' 내지 '인간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는 단서를 붙여 안락사를 합법화하려는 시도가 두드러지고 있다. 실제로 몇몇 국가들에서는 안락사를 합법화하고 이를 근거로 자비로움의 발로에서 나온 것이라는 신념을 심어주기도 한다.

현대적 의미의 안락사는 개념의 세분화 또는 추가규정의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안락사 개념을 다루는 것은 '개념의 규정' 보다 '방식의 구분' 내지는 '세분화된 설명' 이라 하는 것이 옳을 듯싶다. 이러한 배경에서 볼 때, 안락사는 환자 의지에 따라, 시술방식에 따라 각각 다른 의미로 나타난다. 환자 또는 그 가족의 의지를 따라 구분한다면, 자의적 안락사(voluntary euthanasia), 비자의적 안락사(nonvoluntary euthanasia), 반자의적인 안락사(involyuntary euthanasia)로 구분할 수 있다. 반자의적 안락사를 대표적으로 나치에 의해 자행된 유태인 학살이 해당될 듯싶다. 비자의적 안락사는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할 것 같다. 비교적 최근에는 자의적 안락사에 일정한 요건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전승락(informed consent) 또는 사망선택유언(living will)이 그것이다.

또한 안락사의 시술에 따른 의료적 방법에 따라, 적극적 안락사(active euthanasia)와 소극적 안락사(passive euthanasia)로 구분된다. 이것을 의료적 수단의 사용 및 미사용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³⁾ 예를 들어, 적극적

2) 이와 관련하여 가톨릭의 입장을 담은 이동익, 「가톨릭 윤리신학의 안락사 이해와 불필요한 치료행위의 중단에 관한 고찰」, 『가톨릭신학과 사상』 제35호,(2001.3)를 참고하도록 추천한다.

3) Chadwick. R, ed., *Encyclopedia of Applied Ethics* (Academic Press, 1998) p.175-187. "Euthanasia" 세분화된 안락사 개념을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임종식,

안락사는 약물의 투여 등 적극적인 시술을 통한 안락사를 말한다. 그리고 소극적 안락사는 '치료행위의 중단'에 더 가깝다. 그밖에 최근 미국에서 문제가 되었던 죽음의 의사(Dr. Death), 키보키언(Jack Kevorkian) 사건은 의사조력자살이라는 또 다른 개념을 안락사의 종류에 추가한다. 이것을 적극적 안락사의 범주에 드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환자와 의사가 함께 환자를 죽인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⁴⁾

문제는 안락사 개념의 이러한 세분화과정에 그럴싸한 수식어가 등장한다는 점이다. 특히 적극적 안락사를 자비적 안락사(Beneficient Euthanasia)라고 부르는 경우와 함께 존엄적 안락사(Euthanasia with Dignity)라는 용어로 소극적 안락사를 지칭하는 경우가 그렇다. 필자가 보기에, '자비적·존엄적'이라는 수식어에 그리 큰 언어상의 뉘앙스 차이가 없어 보인다. 굳이 따진다면 시술방법의 차이를 말하는 것 이상의 다른 점은 없어 보인다. 어쩌면 소극적 안락사는 환자의 고통과 가족의 부담 등을 명분으로 자행되는 치료중단에 해당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성찰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흥미로운 것은 안락사 개념의 양 극단 주장들 모두 동일하게 안락사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지칭하는 내용에는 큰 차이가 있다. 안락사라는 말 자체를 적극적 안락사에 국한하여 사용하고 이와는 구분하여 소극적 안

『생명의 시작과 끝』 (도서출판 로템나무, 1999) p.306 참조

		환자의 의사(意思)		
		자의적voluntary	非자의적involuntary	反자의적nonvoluntary
시술 방법	적극적active	적극적·자의적	적극적·비자의적	적극적·반자의적
	소극적passive	소극적·자의적	소극적·비자의적	소극적·반자의적

4) 미시건주의 키보키언은 자살기계(Mercitron이라 이름 붙여짐)를 고안하고 지역신문을 통해 희망자를 모집하여, 9년간 130여명이 넘는 사람들의 자살을 도왔다고 한다. 1급 살인죄로 기소된 그는 환자에게 죽음이 허용될 수 있다면, 신속하고 고통없이 죽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그의 행적에는 환자에 대한 충분한 상담도 없었거나 불치병환자가 아님에도 자살을 도와주었던 경우 등이 발견되고 있다.

락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존엄사(尊嚴死)로 말하기도 한다. 그 의도는 존엄사를 정당화하고 합법화하려는 데 있을 것이다. 이외는 정반대로, 안락사를 좁은 의미로 규정하는 것이 안락사 반대로 나타나기도 한다. 가톨릭은 매우 제한적 의미에서 협의의 안락사 개념을 사용한다. 적극적인 의미에서이든 소극적인 의미에서이든 안락사를 결코 용인할 수 없다는 강력한 주장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⁵⁾

최근의 법제화 시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개념은 주로 존엄적 안락사, 즉 소극적 안락사를 말한다. 존엄적 안락사 또는 소극적 안락사 논쟁의 핵심은 불합리한 연명치료 중단을 법률적으로 허용할 것인가 혹은 그렇지 않을 것인가의 문제이다. 입법을 추진하는 쪽에서 내세우는 근본적인 주장은 환자 및 그 가족의 치료중단 요구가 있을 때, 그리고 의학적 기준에 따른 치료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심의기구의 결정에 따라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는 것이다. 의학적으로 회생불가의 환자를 생명연장장치로 연명시키는 것은 환자 자신이나 가족에게 고통이며 사회적 부담도 크다는 것이 주된 이유이다. 한 마디로,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한 연명조치를 중지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면서 죽음을 맞이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생명경시 풍조의 우려 및 남용의 가능성을 비롯한 여러 이유들을 고려한 찬반논쟁이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찬성론이나 반대론 모두에게 부담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부담감을 털어 내기 위한 목적에서 소극적 안락사를 사회적 담론 또는 공론화하려는 것이라면, 좀 더 신중해야 한다. 필자가 보기에, 소극적 안락사 또는 존엄적 안락사 찬성론에는 윤리적 부담이, 반대론에는 현실적 부담이 남는다. 필자가 부담을 말하는 것은 그 어느 쪽도 안락사 문제에 관한

5) 이동익, 앞의 글

논변에서 손쉬운 결론을 지향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존엄적 안락사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윤리적 부담감을 털어 버려서는 안 된다. 혹자는 지금이라도 여론조사를 하면 찬성하는 쪽이 우세할 것이라고 장담하면서 반대론자들을 구시대적인 사람들로 몰아가려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 필자가 보기에 이것 자체가 문제이다. 여론조사가 진실을 말하는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따로 미루어 둔다고 하더라도, 신중한 찬반논변을 이끌어도 부족할 판에 너무 쉬운 길을 택하려 하는 것은 아닐지 안타깝다.

이러한 윤리적 부담감을 전제하고 볼 때, 찬성론자들은 인간존엄의 문제를 앞세워 삶의 질(quality of life)과 죽을 권리(rights to die)를 주장할 수 있다. 현대의료기술의 혜택으로 생명연장기구들에 의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상당기간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찬성론자들은 이러한 생물학적 생명연장이 과연 인격체로서의 존엄성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인지 질문한다. 인간으로서 무의미한 생명연장은 의미가 없다는 생각은 환자의 자율권과 존엄하게 죽을 권리의 존중을 요구한다. 말기환자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은 그의 삶을 생물학적 삶으로 격하시키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앞서 필자가 말했던 윤리적 부담감이라는 것은 신중한 판단의 주문이다. 동시에 존엄적 안락사 찬성론자들은 현실적 이유에 대한 윤리적 정당화 과정이 매우 신중하고도 무거운 부담감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다. 아마도 법과 현실 사이의 부조화가 환자 가족과 의료인을 범법자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현실적인 문제일 것이다. 이를 허용하지는 취지로 법제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존엄적 안락사의 공론화가 생략되어서는 안 된다. 더구나 끼워 맞추기를 위한 절차로 윤리적 정당화를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더구나 시민사회를 말하는 사람들일수록 민주적 절차에 의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기독교를 비롯한 안락사 반대론자들에게도 부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현실적 부담이라는 큰 짐이 남아있다.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경우, 기독교의 안락사 반대론을 아무 부담감도 없는 사람들의 주장이나 시대에 뒤쳐진 집단의 소리로 몰아세우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이다. 안락사 반대론이 말하는 요소들, 즉 인간의 생명은 어떤 경우에도 해칠 수 없다는 하나님의 생명주권론, 선부른 남용의 우려가 있다는 생각에서 나온 미끄러운 경사길 논증 등은 경제적 부담이라는 현실을 몰라서 억지로 지어낸 논리들이 아니다. 찬성하는 사람이 있다면 반대하는 사람도 있게 마련이고, 전통적으로 안락사에 대한 반대론이 유지해온 타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 지극히 마땅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존엄적 안락사를 반대하는 사람에게도 윤리적 책임의식을 심각하게 물어야 한다. 특히 생명연장에 필요한 치료비용의 부담을 포함하여 사회적 제반비용의 보장이라는 과제가 남기 때문이다. 이는 윤리적 의협심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또 다른 차원, 즉 사회적 비용의 제도화라는 또 다른 사회적 합의를 요구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존엄적 안락사 문제가 누군가의 부담을 털어내기 위한 윤리적 정당화의 수단적 절차로 그치지 않고 생명존엄을 위한 논변으로 발전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하고 싶은 것이다.

2. 개념의 구분인가? 변화의 요구인가?

안락사라는 말이면 됐지 굳이 여러 가지 세부적인 구분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안락사를 다룰 때, 여러 가지 수식어가 동원되고 있다는 것은 개념의 변화 또는 인식의 변화를 암시하는 것은 아닐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안락사 개념은 간단하지도 않고 쉽지도 않다. 그 주된 원인은

세분화에 있는 것 같다. 여기에서 우리는 왜 안락사 개념이 세분화되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적극적, 소극적, 자의적, 비자의적 등의 구분이 세분화될수록 안락사 개념의 이해에 혼란이 가중된다.

물론, 세분화의 원인으로 의료기술의 발전이 한 몫을 하는 것은 분명하다. 어쩌면 앞으로 의료기술의 발전과 맞물려 더 세분화된 의견이 등장할지 모른다. 안락사의 단계 또는 과정을 세분화하거나 안락사의 시술방식을 세분화하는 등 또 다른 시도가 나타날 수 있다. 세분화 이외에 새로운 의료적 시도에 따른 새로운 개념이 추가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안락사 유사개념을 추가된 의사조력자살의 경우처럼 새로운 시도는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료기술의 발전만으로 설명하는 것은 안락사 개념을 이해하기에 부족하다. 안락사 개념의 외적 여건도 중요하지만, 개념의 세분화 또는 종류를 추가하는 배경과 의도에 관한 성찰이 필요하다. 혹시 상황에 대한 고려가 지나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닐지 신중한 성찰이 필요하다. 개념의 세분화를 통해 현실문제에 관한 실용적이고 계산적인 자기합리화를 시도하려는 것일 수 있고, 어쩌면 실용적 관점을 앞세워 존엄적 안락사의 범제화를 전제해 놓고 그야말로 정해진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물어야 한다.

나아가 안락사의 개념을 여러 가지로 세분화하고 구분하는 것이 결국은 찬성론을 정당화하는 발판을 만들고 반대론에 대해 시대와 문화의 변화를 수용하라는 요구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의료윤리를 다루는 사람들은 생명문화 또는 가치관의 변화에 주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예를 들어, 배틴(M. Battin)은 안락사에 관한 이해에 문화적 변화(cultural change)라는 요소를 반영해야 한다고 말한다. 여기에는 의료기술의 발전 및 질병문제 등 다양한 요소들이 작용한다. 그리고 생명문화가

변화하는 방향은 질병과 의료기술의 상관관계 및 전쟁을 포함한 인류의 공동체협 등에 따라 진전될 수도 있고 복고적일 수도 있을 것이다.

배틴이 제안하는 현대사회에서의 생명문화적 변화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역학적(疫學的) 전환(epidemiological transition)이다. 죽음에 대한 병리적 설명이 기생충에 의한 질병이나 감염에 의한 것으로 설명하던 방식에서 암이나 심장질환 등 퇴행성 질환에 의한 설명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 그 예다. 생명현상에 대한 의료적 설명방식에 변화가 감지되고 안락사 문제에 있어서 새로운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 죽음에 관한 종교적 태도의 변화이다. 죽음을 죄에 대한 처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어지고, 자살을 심각한 죄라고 하기보다 우울증 같은 정신병리적 요인으로 설명하는 경향을 예로 들 수 있겠다. 셋째,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적 태도의 변화이다. 특히 시민사회의 발전과정에 따라 나타난 개인의 권리에 대한 강조가 죽음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생각이 두드러지고 있다.⁶⁾

이러한 생명문화의 변화에서 눈여겨 볼 것은 죽음에 대한 관점의 변화이다. 죽음이란 더 이상 우리에게 발생하는 그 무엇이 아니라 우리가 시행하는 그 무엇(dying is no longer something that happens to you but something you do)이라는 생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⁷⁾ 안락사 개념이 세분화되는 것 역시 일종의 문화의 변화 또는 의식변화를 반영한다. 그것은 삶과 죽음이라는 근본적인 개념의 변화, 또는 생명문화 일반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필자가 보기에, 의료기술의 발전은 중요한 요인의 하나이다. 그러나 생명에 대한 가치관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 이러한 변화의 기저에 '포스트모던'과 '테크놀러지' 라는 우리시대의 핵심

6) Battin. M., *Ending Life: Ethics and the Way we die* (Oxford Univ. Press, 2005) p.325

7) Ibid.

적인 흐름들이 자리하고 있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어느 것이 어떤 정도로 영향을 주고 어느 방향으로 변화를 이끌고 갈 것인가를 따지기에 는 지면과 능력이 제한되어 있지만, 안락사를 둘러싼 생명문화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만큼은 분명하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대목은 바로 이 부분이다.

3. 생명문화의 변혁을 위한 사회윤리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기독교가 존엄적 안락사를 반대하는가 혹은 찬성할 수 없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아니다. 존엄적 안락사에 대한 반대는 기독교적 전통의 하나로 자리잡아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존엄적 안락사 개념을 내세워 새로운 성찰을 요구하는 것은 결국 안락사에 대한 기존의 반대입장을 변경하지는 제안일 수 있다. 생명문화의 변화에 발맞추어 변경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그리고 그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근거를 개발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묻는 작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존엄적 안락사에 대한 찬반의 목소리를 찾아내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 개혁적 전통에 따른 신앙양심의 자유를 확고히 믿는 신학자들 사이에 분분한 의견들이 말 그대로 자유롭게 오갈 것이다.⁸⁾

전통적으로, 기독교는 제5계명을 중심으로 자살을 포함하는 살인행위

8) 필자는 우리사회에서 생명윤리에 관한 기독교의 관점이 양분되어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솔직히 말하고 싶다. 우리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배아복제 문제에 관해서 기독교 안에서 그동안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보였던 신학적 보수와 진보의 견해차이가 재현되었던 현상을 기억해 보자. 배아복제를 반대하는 신학자들을 비지성적이고 비과학적인 부류로 몰아세우고 배아를 인간이라고 하려면 차라리 정자와 난자까지 인간이라고 하라는 비아냥이 기독교 안에서 일어났고 서로 다른 입장의 성명서를 발표했던 일은 윤리문제에 대한 찬반을 넘어서는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존엄적 안락사'의 문제도 다를 바 없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필자가 보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누구의 성명서가 신학적으로 타당한 것인가 하는 논쟁 이전에 실천적인 관점에서 생명존엄을 위한 협력이다.

에 대한 금지가 성서적 근거를 가진다는 입장을 취하여 왔다. 문제는 포스트모던과 테크놀러지로 대변되는 현대사회에 있어서 그 해석의 변경가능성이다. 그 한쪽에는 기술의 진보와 사회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명주권에 대한 고백은 불변한다는 주장이 있다. 특히 인간이 생명에 대한 조작을 감행하는 것 자체가 허용될 수 없다는 주장은 존엄적 안락사 논쟁에 대한 반대론의 중요한 근거일 것이다.

이를테면, 램지(P. Ramsey)는 과학기술시대에 인간이 생명에 대한 조작을 감행하는 것 자체를 극단적으로 부정한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하나님 노릇(playing God)을 하려고 들기 전에 먼저 인간이 되기를 배워야 한다. 인간이 되기를 배운 다음에는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들지 않을 것이다.⁹⁾ 이러한 배경에서 보면, 존엄적 안락사는 실용적 관심과 의료기술을 통해 알게 된 생명의 상태에 관한 정보를 명분삼아 인간생명을 조작하는 하나님 노릇하기에 속하는 것일지 모른다.

그러나 최근 들어 기독교의 생명윤리에 관한 전통적 관념에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하는 경우들이 생겨나고 있다. 아예 근본적으로 안락사를 반대하는 전통적인 신학적 견해가 논리적 오류라고 말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의료윤리학자로 알려진 칠드레스(J. Childless)는 의사조력자살과 적극적 안락사에 대한 기독교의 전통적인 관점에 의문을 제기한다. 자살을 잘못이라고 믿는 견해에서 안락사 문제에 대한 답을 연역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다.¹⁰⁾ 그리고 이러한 문제제기가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 현대의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상당부분 찾아 볼 수 있다고 말한다. 그 예로 거스탐슨(J. Gustafson)이 생명이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때로 견디기

9) Ramsey, P., *Fabricated Man: The Ethics of Genetic Control* (Yale University Press, 1970), 138.

10) Childless, J., "Christian ethics, medicine and genetics" in Gill, R., ed., *The Cambridge Companion to Christian Ethics* (Cambridge Univ. Press, 2005. 5th ed.) p.270

어려운 부담이 되는 경우라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지 모른다고 말했던 부분을 들어 안락사를 이웃사랑의 통로라고 해석할 여지를 주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¹¹⁾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 굳이 해석의 적절성을 따지지 않더라도, 이러한 시도는 이미 상황윤리를 말했던 시절에 수없이 나타났다. 거의 모든 부분에서 전통적 생명윤리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주장들이 발견된다.

또한 기독교 신앙인들 역시 현실적 부담감에서 예외일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예를 들어 기독교윤리학자 길(R. Gill)에 따르면, 안락사에 관한 기독교적 논변은 전통적인 교회의 지침이나 신학자들의 관점에만 의존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며 평신도들의 관점을 소홀히 여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전통적인 신학이 대다수 평신도들이 의사조력자살과 안락사가 합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지지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이다.¹²⁾ 시대의 변화 내지는 생명문화의 변화에 대응하여 기독교 역시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락사를 반대하는 전통적 담론을 내세워 현실을 무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으로 들릴 수 있는 대목이다. 이처럼, 존엄적 안락사에 대한 기독교적 성찰은 극과 극을 달릴 수 있다. 다양할 정도가 아니라 대립적일 수 있다.

필자가 보기에 우리가 진정으로 질문해야 할 것은 기독교가 어떤 근거에서 반대하고 어떤 이유에서 찬성하는가를 탐색하는 것이 아니다. 더 중요한 질문을 제기해야 한다. 안락사를 위시한 생명문화가 변화되면, 신학적 성찰도 변화되는 것이 마땅한가 하는 점이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미 전통적으로 성서의 관점이 자살을 포함하는 살인을 금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존엄적 안락사를 새삼 신학적으로 성찰하지는

11) Ibid. 재인용. 필자가 보기에 칠드레스의 거스탑슨 해석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좀 더 세밀한 성찰이 필요한 것 같다.

12) Ibid. p.272

것은 결국 변화를 수용하지는 제안과 다를 바 없다. 게다가 존엄적 안락사를 성서적 이유에 의해 반대한다고 할 경우에, 시민사회가 요구하는 변화를 수용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반대에 대한 반대의견이 빗발칠 것이 분명하다. 마치 배아복제 문제를 둘러싸고 진보와 보수라는 해묵은 편 가르기가 재현되었던 것처럼 또 한 번 기독교 자체가 여론의 도마에 올라가지 않을까 염려된다.

변화하는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는 분명히 있지만, 그렇다고 시대의 변화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옳다고 단언할 수 없다. 무엇이 진정한 변화이며 바람직한 변화의 방향인가를 먼저 고민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필자는 이 문제를 둘러싼 신학적 입장들의 차이를 부각시키는 것 보다 신앙인과 신학자들이 일반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부분들부터 확인해 나아가는 것이 옳다고 본다. 생명의 전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있다는 고백이 그것이다. 물론 이 신앙고백을 어떻게 해석하고 실천방안을 제시할 것인가 하는 점은 다른 해석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진보와 보수를 가르치는 것보다 동일한 신앙고백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대안의 모색에 상호협력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존엄적 안락사가 운위되고 있는 시대에 기독교는 생명에 대한 가치관 및 문화에 주목해야 한다. 그리고 문화의 변혁이라는 소중한 주제를 생명윤리 분야에서도 공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문화변혁은 개신교 신학에서 중요한 관심사로 자리잡아 왔으며, 최근에는 대중문화의 변혁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 생명문화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면, 현대사회에서 생명에 관한 가치관 및 의식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것에 하나님의 생명주권에 기초한 생명문화를 지향하는 문화의 변혁을 말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문화의 변혁을 위한 노력은 대중문화 분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문

화의 변혁을 위한 기독교적 노력에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¹³⁾

여기에는 몇 가지 대안적 실천사항을 제안할 있다. 첫째, 삶과 죽음에 통전적 이해를 추구해야 한다. 존엄적 안락사를 찬성할 것인가 혹은 반대할 것인가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나 기독교의 이름으로 상반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일은 막아서 막아지는 것이 아니다. 어느 쪽 입장이 옳은 것이며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인가 하는 질문 역시 쉬운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하나님의 생명주권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생명존엄의 참 뜻을 구현하려는 실천적 노력이 필요하다.

혹은 생명과 죽음에 대한 잘못된 문화가 올바른 가치관에 입각한 생명문화를 향하여 변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계몽과 실천이 요구된다. 최근에 죽음에 대한 학술적 활동을 표방하는 단체도 생겨나고 있는 마당에 고령화시대를 위한 웰빙(well-being)뿐 아니라 웰 엔딩(well-ending) 또는 웰다잉(well-dying)까지 고려하는 포괄적인 이론적 대안이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어야 하겠다. 특히 성서가 말하는 하나님의 생명주권에 입각하여 삶과 죽음에 대한 통전적이고 균형잡힌 신앙적 시각을 제공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13) 예를 들어, 미국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시아보(T. Schiavo) 사건을 놓고 여론조사 결과는 생명문화 문제에 관한 이야기꺼리 일 수 있다. 흥미롭게도, 다른 사람에 관한 결정에는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던 사람들이 정작 자신의 문제가 된다면 안락사를 택하겠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안락사에 대한 신념과 현실, 또는 개인의 선택 사이에 괴리가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 기독교 신앙인들에게서도 생명문화와 관련된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부활절을 기념하여 장기기증운동을 전개한 경우, 실제 참여자의 수가 예상외로 저조하게 나타난 경우가 있다. 그것은 부활신앙의 문제라기보다 생명문화의 문제라고 해야 한다. 장기기증과 시신기증의 숭고한 뜻은 이해하지만, 전통적으로 신체에 대해 가지는 우리민족 고유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쉽게 결정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는 생명윤리 문제해결의 과정에 생명문화가 차지하는 요소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암시해 준다. 이러한 의미에서, 문화변혁의 관심이 생명문화에도 적용되어야 하며, 그 방향은 하나님의 생명주권과 생명의 존엄을 위한 것이 되어야 마땅하다.

둘째, 안락사 문제의 생명존엄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안락사를 찬성 또는 반대하는 것 못지않게 생명존엄의 가치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가령, 의료적 치료(curing)만으로 모든 것을 종료했다고 선언하기보다 공동체적 돌봄(caring)의 필요성을 주장한 하우어와스(S. Hauerwas)의 주장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¹⁴⁾ 특히 교회공동체의 윤리적 실천을 중요시하는 하우어와스의 입장을 응용하자면, 교회는 의료적 치료 이외의 돌봄의 공동체로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제안이라 할 수 있겠다.

그 실천의 가능성 중 하나는 아마도 호스피스 대안에서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단지 자원봉사 프로그램이기를 넘어 사회윤리학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마땅하다. 일반적으로, 말기환자(terminal patient)를 위한 대안으로 다루어지는 호스피스 프로그램은 자원봉사단체나 교회의 몫으로 남겨두기에는 소중한 의미와 경제적 부담이 공존하는 복합적인 의미를 지닌다. 본래 라틴어 Hospes에서 유래한 이 프로그램은 접대하는 사람(host)이라는 말과 손님(guest)이라는 말이 합성된 것으로서, 죽음의 방식에 관한 중요한 대안일 수 있다. 의사와 함께 삶의 총결산이라 할 수 있는 죽음의 시점에 와있는 말기환자를 돌보고 죽음을 준비하게 하며 인간존엄이 존중되는 삶의 마감을 거드는 일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¹⁵⁾ 문제는 이 프로그램이 사회적 비용부담을 위한 제도적 배려의 단계

14) Hauerwas, S., *Vision and Virtue: Essays in Christian Ethical Reflection* (Univ. of Notre Dame Press, 1974) pp.166-186

15) 호스피스 자원봉사 수기로 김미자, 『짧은 만남, 긴 이별, 영원한 만남』 도서출판 새순 (1996)을 소개한다. 호스피스의 개념은 이 책 pp.17-70을 참고하였다. 말기환자를 자존심과 위엄을 가지고 마지막 삶을 살도록 도우며 평안한 임종을 맞도록 보살핀다는 의미로 가톨릭 용어로 선종봉사(善終奉仕)라고 번역하기도 한다. 특히 중세교회시절 환자를 돌보는 치료소, 나그네가 쉬어가는 여인숙, 가난한 자를 돌보는 구호처 등 광범위한 자선적인 단체나 장소를 의미했지만, 현대에는 장소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시일 내에 사별하게 될 말기환자를 보살피는 프로그램, 또는 프로그램을 따라 봉사하는 병원이나 시술팀 및 그 일에 종사하는 개인을 지칭하는 말로 널리 쓰인다.

로 발전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독교가 생명의 파수꾼을 자처하고 생명존엄을 위해 일하려 한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기여가 요청된다.

필자가 보기에, 기독교사회윤리학이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대목이다. 안락사 문제에 관한 공론화를 통해 그 허용을 위한 법제화가 시도되는 것은 크게 보아 안락사를 개인의 선택이나 부담으로 남겨두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사회구조와 법령에 관련된 정책적 문제로 다루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제도와 정책을 통해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거나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려는 시도 자체는 사회윤리 영역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안락사 문제를 공론화하는 과정이 어느 한 쪽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정당화하려는 시도로 전락하지 말아야 함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

존엄적 안락사를 허용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능사는 아닐 것이다. 존엄적 안락사라는 세분화된 개념을 기초로 법과 현실의 괴리 해소를 위해 안락사를 허용하지는 주장이 세력화되는 것 못지않게 그 대안으로 거론될 수 있는 호스피스적 접근의 의료제도화에도 깊은 성찰과 관심이 필요하다. 호스피스를 종교와 자선단체의 몫으로 넘길 것이 아니라 의료제도의 일부분으로 과감하게 수용할 것을 제안한다.

존엄하게 죽을 권리의 인정 및 치료비용의 해소라고 하는 현실적인 이 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소극적 안락사를 허용하지는 주장이 나온 것 이라면, 생명존엄을 위한 노력의 카운터 파트너인 호스피스 역시 상대적 으로 중요한 몫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어떠한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에 관한 논의에 존엄적 안락사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호스피스 프로 그램을 그 상대개념으로 상정할 수 있다면, 호스피스의 현실적 부담감 역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마땅하다. 호스피스에 요구되는 경제적 부담

및 의료적 관심은 개인과 자선단체의 선의에 맡겨두기에는 버거운 일이다. 문제는 존엄적 안락사의 허용에 관한 논변에 너무 많은 관심이 쏠려 있어서 호스피스 활동의 가치과 중요성을 소홀히 다루는 경향이 팽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점에서, 호스피스에 대한 관심의 필요성과 그 제도화의 요구 역시 공론화되는 것이 타당하다.

III. 나오는 말

사회의 변화를 명분삼아 소극적 안락사를 사회적으로 공론화하여 합법적으로 허용하지는 논의가 세를 더하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법과 현실의 괴리를 말하는 사람이 많다는 뜻일 수 있다. 신앙인에게서는 아마도 현실적 부담이라는 것 이외에 신앙과 현실의 괴리까지 추가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생명문화의 변화와 신학적 대응이 문제가 되고 있는 셈이다.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이 생명존엄이며 인간존엄인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다.

존엄적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제화가 시도되는 것과 관련하여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존엄적 안락사를 허용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생명존엄을 위한 대안적 모색의 길을 열어두어야 한다. 특히 호스피스의 제도화 문제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아울러, 존엄적 안락사의 개념을 둘러싼 논쟁 역시 공론화 과정을 겪으면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야 한다. 허용이라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여론몰이나 사회적 불을 조성하는 수준에서 결론짓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좀 더 넓은 의미에서 볼 때, 존엄적 안락사 허용 여부에 관한 논쟁 역시 생명존엄을 위한 윤리적 모색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Battin. M., *Ending Life: Ethics and the Way we die* (Oxford Univ. Press, 2005)
- Chadwick. R, ed., *Encyclopedia of Applied Ethics* (Academic Press, 1998)
p.175-187. "Euthanasia"
- Childress, J., "Christian ethics, medicine and genetics" in Gill. R., ed., *The Cambridge Companion to Christian Ethics* (Cambridge Univ. Press, 2005. 5th ed.)
- Hauerwas, S., *Vision and Virtue: Essays in Christian Ethical Reflection* (Univ. of Notre Dame Press, 1974)
- Ramsey, P., *Fabricated Man: The Ethics of Genetic Control* (Yale University Press, 1970)
- 임종식, 『생명의 시작과 끝』 (도서출판 로템나무, 1999)
- 이동익, 「가톨릭 윤리신학의 안락사 이해와 불필요한 치료행위의 중단에 관한 고찰」, 『가톨릭신학과 사상』 제35호,(2001.3)
- 문시영, 『생명복제에서 생명윤리로』 (대한기독교서회, 2001)

K C I